

주간케인

WEEKLY KANE

#04



해설지 부록: 손클레 해설

지문 위 구조 파악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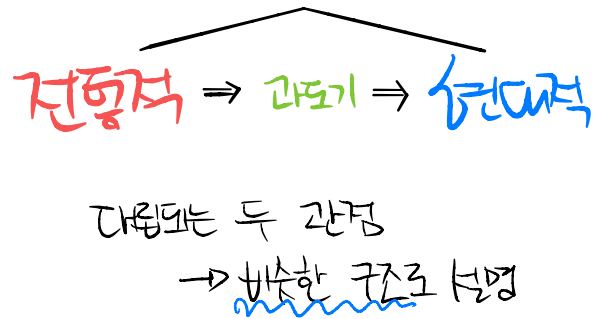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실전 반응

$K \propto \frac{1}{\text{경기}}$
경기 - 시장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금융을 통한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인 아니므로 단기적인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실전 반응 정리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Handwritten notes: $K \propto \frac{1}{P}$, 검색 - 시장, "반면" "그러나" 등 같은 단어를 나타내는 단어는 however를 의미하는 표시 하며 반을 합니다.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2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X
 - ②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개별 금융 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X
 - ③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 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X
 - ④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O
 - 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X
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O
 - ② ㉡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O
 - ③ ㉠은 ㉡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X
 - ④ ㉡은 ㉠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O
 - ⑤ ㉠과 ㉡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O

2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D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늘어나 경기

<보기>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 운용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가 (A)일 때 (B)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자본을 (C)하도록 하고, (D)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여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

- | | | | | |
|---|-----------|-----------|-----------|-----------|
| | A | B | C | D |
| ① | <u>불황</u> | <u>거시</u> | <u>사용</u> | <u>미시</u> |
| ② | 호황 | 거시 | 사용 | 미시 |
| ③ | 불황 | 거시 | 적립 | 미시 |
| ④ | 호황 | 미시 | 적립 | 거시 |
| ⑤ | 불황 | 미시 | 사용 | 거시 |
- 이게 속제된 것은 미리 알고 있었어야 함!

30. 윗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올리기’(pushing on a string)라고 부른다. 이는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것은 쉽지만) (밀어서 위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빗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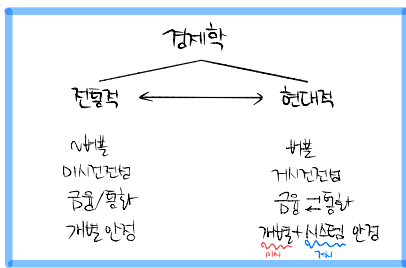
- ① ‘끈 밀어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에 자산 가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군.
- ②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의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군.
- ③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 ④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경기 침체기에는 정책 금리 조정 인위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군.
- ⑤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정책 금리 인상은 ~~신용 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겠군.

31.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나는 그 사람에게 친근감이 든다.
- ② 그는 목격자의 진술을 증거로 들고 있다.
- ③ 그분은 이미 대가의 경지에 든 학자이다.
- ④ 하반기에 들자 수출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 ⑤ 젊은 부부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들기로 했다.

지문 필터링 : 흘려읽기





이 지면에 전통과 현대를 구분한 비유로 사용할 것은 첫 단락을 읽을 때 계속해서, 전통의 이항대립의 요소를 반응하여 현대적은 계속할 수 없었기에, 빨리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국어 영역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시장**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이런~~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① **거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인**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거시 건전성 정책에 **②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거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거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버블**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④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 "버블"의 경제학적 의미는 이미 많이들 아세요? 애매하게 알고 있었다고 해도 지문을 읽으며 충분히 내츨 가능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걸 설명하는데 굳이 백백하게 읽을 필요 있나요?
- 우리가 계속할 때, 문제 상황 발생! 내일 확인한 하거 씩~ 읽어요
- 우리나라의 방법이 문제가 있다. 이 정도의 인상은 잡고 넘겨!
- 득점이 아니다!
- 계속 비슷한 말!
- 시스템을 고려한다. 검색과 검색 수단의 역할은 파악했다면 씩~ 읽고 확인만 하면 됨.
- 당연히 거시건전성 예방적 규제를 갖는게 선택적이지? 시스템에 대한 예방적 규제 흐름을 아는 사람의 득점 속도는 빠릅니다.

